

---

## 효율적인 방사선과 임상실습 방안에 대한 고찰

신구대학 방사선과

우창환, 김정훈, 조동열, 안태일

---

**목 적** : 시대변화에 맞는 임상실습 교과목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고찰을 위해 임상실습 교육을 경험한 재학생들을 통해 설문지를 받아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으로는 2003년 서울 및 수도권내 3개 대학 3학년 학생 174명에게 재학생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인 사항과 임상실습의 필요, 실습시기와 학점배정, 임상실습 전/후의 재학생들의 심리상태, 실습생이 바라본 방사선사의 모습, 앞으로 방사선사로서의 각오등 재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이며 7~9월 중 설문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결 과** : 대상자들의 내용에서는 임상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적절한 시기로는 2학년 2학기가 많았으며 현행 학점에 대한 견해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실습기간은 6~8주가 가장 적당하다고 나왔다.

임상실습 중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환자를 접하고 선배방사선사와 인간관계 형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의 도움정도에서는 필요하더라도 대부분이 답하였다. 임상실습 전·후의 심리적 변화에서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와 임상근무자와의 대인관계 도모 등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반면 실습 중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교육체계에는 약간의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바라본 선배 방사선사들의 모습은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기역할 다하고 있었다라고 많은 수가 답하였다. 재학생들의 졸업 후 임상에 근무할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병원/학교측이 상호협력하여 현실성있는 지침서를 작성 후 일관성있게 활용하여 지도해야하며 선배 방사선사들의 적극적인 노력, 학교에서의 강의가 임상실습과 연계될 수 있는 교수들의 방법연구 등 임상실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공동 노력해 우수한 방사선사 양성을 위한 임상실습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는 병원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표준화된 평가도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